

## 배남주 Bae Namju (b.1985-)

## | 전시서문 |

## 맥화랑기획 GALLERY MAC FOCUS(맥화랑포커스)

## | 학력 |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회화전공 졸업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졸업

## | 개인전 |

2024 가변지역 (맥화랑, 부산)  
2020 Quiet night (스타파이브 갤러리, 인천)  
2019 이성의 꿈 (lemusee, 부산)  
2017 Reflection (갤러리 채움, 부산)  
2016 관계에 대한 화두 (갤러리폼, 부산)  
2015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프랑스문화원 아트스페이스, 부산)  
2015 없어도 되는 허구 (갤러리폼, 부산)  
2014 대안의 숲 (케이갤러리, 부산)  
2013 갤러리 골목 기획 초대 전날의 숲 (갤러리골목, 서울)  
2012 갤러리 봄 기획 초대 기묘한 이야기 EP2 (갤러리봄, 부산)  
2012 기묘한 이야기 EP1 (갤러리 이드, 청주)

## | 그룹전 |

2024 범향만리(凡香萬里) (범향갤러리, 부산)  
2023 THE DOOR-Anywhere Whenever (유니랩스갤러리, 부산)  
2023 맥화랑기획 17th <10-200, 행복한 그림전> (맥화랑, 부산)  
2023 컬렉터의 시선 (위경하우스인뉴욕, 부산)  
2023 공존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갤러리, 양산)  
2023 불완전한 언어 (갤러리 어썸, 부산)  
2022 BAMA호텔아트페어 (그랜드조션, 부산)  
2022 좋은친구들 (갤러리휘, 부산)  
2022 ART IN THE BAY (더베이 101, 부산)  
2022 자연생태도감 (울속도 문화회관, 부산)  
2022 맥화랑기획 16th <10-200, 행복한 그림전> (맥화랑, 부산)  
2022 Bama AGE2030 특별전 (벡스코, 부산)  
2022 Refresh mind (갤러리봄, 대구)  
2021 E:CO-EXIT展 (북한문화공간 퍼사운즈, 부산)  
2021 문득 하늘을 봐! (울산중구원도심 문화의 거리, 울산)  
2021 맥화랑기획 15th <10-200, 행복한 그림전> (맥화랑, 부산)  
2021 바다, 숲, 도시 : 공존 (영도놀이마루갤러리, 부산)  
2021 슬기로운 중앙동 예술생활 (북한문화공간 HAEDEN, 부산)  
2020 Knock Knock (갤러리 레이어드, 부산)  
2020 맥화랑기획 14th <10-200, 행복한 그림전> (맥화랑, 부산)  
2020 동시대미술의 최전선 (쿤스트독 523, 부산)  
2019 무드셀라 (금정문화회관, 부산)  
그 외 다수.

## | 작품소장 |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코로나19라는 팬데믹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그간 미술시장에는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맥화랑은 변화무쌍한 미술시장 속에서 시류에 흔들림 없이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나아가고 있는 작가들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시장의 트렌드나 소비자의 취향에 맞춘 천편일률적인 작업이 아닌, 10년 이상의 시간을 작업에 전념하며 전업 작가로서 올곧은 심지와 방향성, 진정성과 깊이감 있는 작업으로 재조명해야 할 작가들을 "GALLERY MAC FOCUS(맥화랑포커스)"를 통해 선보입니다.

## &lt;가변지역: 불확정적 상호작용으로부터&gt;

맥화랑 기획전 "2024 GALLERY MAC FOCUS"의 첫 번째 작가는 배남주 작가입니다. 1985년생 배남주 작가는 작업 초기부터 평면 페인팅 작업을 통해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이라는 개념에 주목하며 이항대립적 상황을 부정하는 '중간'의 성질인 '불확정성'을 시각화합니다. 행복과 불행, 죽음과 탄생, 안과 밖, 빛과 어둠, 현실과 이상의 중간과 같이 명확하게 정의될 수 없는 불명확한 그 '사이 공간'에 매료된 작가는 '중간'의 개념을 '대안적 이상 세계'로 설정하고, 불확실한 세계를 회화적으로 풀어냅니다.

이러한 배남주 작가의 작품세계는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의 해체론적 사고와 유사합니다. 이성 중심의 건축술적 욕구로부터 예술을 해방하려고 한 데리다는 『회화에서의 진리(1978)』에서 '파에르곤(parergon)'의 개념을 부각합니다. '파에르곤(parergon)'이란 예술 작품의 부속물, 즉 본질적인 예술작품(에르곤; ergon)을 둘러싼 비본질적인 장식품인 '액자'를 말하는데 데리다는 예술 작품의 세계와 그 바깥 세계 사이를 경계 짓는 중간 지대인 액자 역시 작품에 영향을 미치는 작품의 일부라 말합니다. 작품과 외부 세계가 액자로 분절된 것이 아닌, 작품을 둘러싼 액자도, 넓게 보면 작품이 전시된 공간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람자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어떤 것이 본질이며 아닌지 구분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결국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정의할 수 없는 세계는 데리다가 말한 '차연(différance)'의 개념처럼 명확히 정의할 수 없는 불확정성과 불안정함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이상 세계'를 시각적으로 정의하고 구현하는 것만큼이나 모순되는 행위도 없다고 생각한 작가는 끊임없는 방법적 연구와 고민을 거듭하며 작업의 개념과 회화적 방법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인전 《가변 지역》은 그간 작가가 고민해 온 '불확실성(불확정성)'으로부터 파생된 이야기로, 우리가 인지하는 세계 역시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경험이 우리의 기억을 재가공하고 변형시키며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과거의 순간을 포착한 사진 이미지를 바탕으로 물감으로 덮고 다시 긁어내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기억이 현재의 경험으로부터 변형되는 과정을 드러내며, 그 결과물은 사진 이미지와 페인팅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현재와 기억의 형성을 보여줍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우리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며, 과거와 현재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는지 탐구합니다. 이번 배남주 개인전 《가변 지역》을 통해 작가와 작품, 작품과 관람자 사이의 '불확정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와 해석을 확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 맥화랑 큐레이터 김정원 (2024)